

하나은행, '컬처뱅크'로 전일빌딩에 돌아왔다

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맞물려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는 추세에도 금융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은행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고객 만족도 높이기엔 나섰다.

7일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최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로 이전, 이달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공간은 1~3층 연면적 1850㎡(560평) 규모로, 하나은행 광주지점과 금남로지점, 하나금융투자 광주금융센터가 한데 모였다.

이곳에서는 은행의 수산·대출·외환업무와 해외주식·채권·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가계·여성·기업·연·기업·외환 업무 창구도 별도로 마련됐다.

광주지점 금남로 1번지로 이전, 이달부터 본격 영업 돌입 금융업무 넘어 문화예술 등 새로운 경험 제공하는 장소로

1층 입구에는 외환 업무를 볼 수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과 공과금 자동납입기가 구비돼 있다.

3층에 마련된 하나VIP 클럽에서는 광주 지역 1억원 이상 거래 고객 1300여 명을 관리한다.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금남로 1번지' 전일빌딩 등지를 트며 광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점 자산은 1조6000억원으로, 호남·제주권 영업점 33곳(광주·전남 15곳·전북 14곳·제주 4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하나은행의 전신 외환은행은 전일빌딩이 준공된 1968년부터 6년 뒤인 1974년 입점했다. 이후 전일빌딩이 개설회사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8년 2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이전을 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은 크게 독서·음악·강연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룸'과 회의·영화 관람을 위한 '커뮤니티룸', 전시·다목적 등으로 구성됐다. 대형 화면과 입체 음향기기로 구성된 홈시어터와 테이블, 태블릿PC, 오디오북 등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룸은 회원이 아니라도 대관할 수 있으며 인문학 강좌, 맞춤형 금융교육, 요리교실, 평생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억의 충장축제와 광주문화제야행 '동구 달빛걸음' 등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활동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광주시와 협력해 인문 동아리 회원 등에는 도서와 음료 할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지점장은 "호남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처뱅크는 단순한 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쉼터로 여겼으면 한다"며 "라운지 1968의 경우 1950~1970년대 지역경제를 이끈 주역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정민식 호남영업그룹장은 "은행은 더 이상 금융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휴식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은행을 한번 방문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에 긍정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광주지점의 또 다른 매력은 1층 610㎡(185평) 규모로 조성된 '컬처뱅크'에 있다. 수도권·충청지역에 이어 전국에서는 7번째, 호남권에서는 첫 개점이다.

컬처뱅크는 하나은행의 비활용 공간자산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내걸고 있다. 전일빌딩 준공 시기인 1968년에 착안, 이 공간을 '라운지 1968'이라 이름 붙였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은 크게 독서·음악·강연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룸'과 회의·영화 관람을 위한 '커뮤니티룸', 전시·다목적 등으로 구성됐다. 대형 화면과 입체 음향기기로 구성된 홈시어터와 테이블, 태블릿PC, 오디오북 등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룸은 회원이 아니라도 대관할 수 있으며 인문학 강좌, 맞춤형 금융교육, 요리교실, 평생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억의 충장축제와 광주문화제야행 '동구 달빛걸음' 등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활동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광주시와 협력해 인문 동아리 회원 등에는 도서와 음료 할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지점장은 "호남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처뱅크는 단순한 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쉼터로 여겼으면 한다"며 "라운지 1968의 경우 1950~1970년대 지역경제를 이끈 주역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정민식 호남영업그룹장은 "은행은 더 이상 금융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휴식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은행을 한번 방문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에 긍정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문화와 금융업무를 접목한 하나은행 광주지점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호남 최초로 조성하고 이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층 은행 창구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4.17 (-23.76)	↓ 금리(국고채 3년) 0.843 (-0.011)
↓ 코스닥 759.16 (-0.74)	↓ 환율(USD) 1195.70 (-0.10)

"목포 경제 살리고 경품도 받아주세요"



송중욱(가운데) 행장과 김중식(왼쪽 두번째) 시장 등이 7일 목포시청에서 목포사랑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목포사랑카드' 출시 기념 광주은행 9월까지 경품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역화폐 '목포사랑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시 지역화폐는 지난해 9월 중이형(지류형)으로 나온 뒤 이달부터 광주는 행과 협업으로 카드 형태로 출시된다.

목포사랑카드는 목포지역 7개 광주은행 영업점과 무안지역 2개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 충전이나 현금 구매 없이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일 5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6% 상당을 돌려 받는 '캐시백' 혜택이 있다. 7월 한 달 동안 이용액의 10%(최대 5만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0.2% ▲슈퍼·편의점, 아·미용, 영화, 커피, 교통업종 등 5% 캐시백 ▲주유업종 1당 50원 등으로 나눠진다.

이 카드는 목포에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이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행성 업종,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광주은행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까지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준다.

1등 1명에게는 목포사랑카드 100만원권을 주고 ▲2등(2명) 50만원권 ▲3등(10명) 10만원권 ▲4등(400명) GS25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송 행장은 "목포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로 목포시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카드의 발급과 운영, 홍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지역화폐는 지난해 9월 중이형(지류형)으로 나온 뒤 이달부터 광주는 행과 협업으로 카드 형태로 출시된다.

목포사랑카드는 목포지역 7개 광주은행 영업점과 무안지역 2개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 충전이나 현금 구매 없이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일 5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6% 상당을 돌려 받는 '캐시백' 혜택이 있다. 7월 한 달 동안 이용액의 10%(최대 5만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0.2% ▲슈퍼·편의점, 아·미용, 영화, 커피, 교통업종 등 5% 캐시백 ▲주유업종 1당 50원 등으로 나눠진다.

기아차, 2030세대 위한 '스타트 플랜' 출시 광주·전남 6월 주식거래 전달보다 15% 증가

할부 등 구매 부담 덜어주기

기아자동차는 2030세대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트 플랜은 ▲차량 가격 일부 유예 ▲특별 저금리 적용 ▲다양한 부가 서비스 연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아차만의 특별 구매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달 중 모닝, 레이, K3, 니로 HEV, 쏘울, 스토니, 셀토스,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하는 2030세대(1980~2000년 출생)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48개월 할부기간 동안 선수를 제한 없이 차량 가격의 최대 57%를 유예해준다. 또 3.5% 특별 저금리 혜택을 적용 받아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 플랜으로 2248만원 상당의 셀토스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매하면 48개월간 매달 약 25만원을 납입, 마지막 할부금납입 회차에 1281만원의 유예금을 함께 납입하면 된다.

또 스타트 플랜 이용 고객이 기아차의 다른 차종으로 대차를 고려할 경우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매각한 후 남아 있는 유예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월 시황이 호전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증가했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월 주식 거래량은 전달보다 15.27%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량은 505만주로 집계됐다. 지역 거래대금도 37.84%(일 평균 1018억원) 증가했다.

전국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4.86%, 39.43%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시가총액은 7.41%(1조 5107억원) 감소했다.

지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총은 1조 4630억원(-8.10%) 줄어든 16조6004억원, 코스닥은 477억원(-2.05%) 감소한 2조2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전력으로, 1조3481억원(-9.72%) 감소했다. 한전KPS(-5.83%·810억원), 세화아이엠씨(-17.87%·242억), 보해양조(-10.11%·108억원), 조선내화(100억원), 광주신세계(88억원) 등 감소 폭이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손에프엔지 시총이 374억원(-21.91%) 급감했고, 위니아대체(-18.90%·216억원), 와이엔텍(-6.33%·136억원) 등도 감소했다.

지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총은 1조 4630억원(-8.10%) 줄어든 16조6004억원, 코스닥은 477억원(-2.05%) 감소한 2조2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전력으로, 1조3481억원(-9.72%) 감소했다. 한전KPS(-5.83%·810억원), 세화아이엠씨(-17.87%·242억), 보해양조(-10.11%·108억원), 조선내화(100억원), 광주신세계(88억원) 등 감소 폭이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손에프엔지 시총이 374억원(-21.91%) 급감했고, 위니아대체(-18.90%·216억원), 와이엔텍(-6.33%·136억원) 등도 감소했다.

지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총은 1조 4630억원(-8.10%) 줄어든 16조6004억원, 코스닥은 477억원(-2.05%) 감소한 2조2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전력으로, 1조3481억원(-9.72%) 감소했다. 한전KPS(-5.83%·810억원), 세화아이엠씨(-17.87%·242억), 보해양조(-10.11%·108억원), 조선내화(100억원), 광주신세계(88억원) 등 감소 폭이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손에프엔지 시총이 374억원(-21.91%) 급감했고, 위니아대체(-18.90%·216억원), 와이엔텍(-6.33%·136억원) 등도 감소했다.

지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총은 1조 4630억원(-8.10%) 줄어든 16조6004억원, 코스닥은 477억원(-2.05%) 감소한 2조2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전력으로, 1조3481억원(-9.72%) 감소했다. 한전KPS(-5.83%·810억원), 세화아이엠씨(-17.87%·242억), 보해양조(-10.11%·108억원), 조선내화(100억원), 광주신세계(88억원) 등 감소 폭이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손에프엔지 시총이 374억원(-21.91%) 급감했고, 위니아대체(-18.90%·216억원), 와이엔텍(-6.33%·136억원) 등도 감소했다.

지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총은 1조 4630억원(-8.10%) 줄어든 16조6004억원, 코스닥은 477억원(-2.05%) 감소한 2조2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 12일부터 인천~중국 난징 노선 운항 재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던 한중 항공 노선이 다시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인천~중국 난징(南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운항은 주 1회로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20분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2시 50분 난징에서 돌아오는 일정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양국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중국 민항국은 코

나19 확산 이후 줄어든 양국의 항공편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협의해왔다.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두 국가 합의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제한해 항공편을 대폭 감축했었다.

이번 운항 재개는 양국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중국 민항국은 코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